

문예관평의 특성

리 광 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관평은 깊이가 있으면서도 누구나 보고 쉽게 리해할수 있게 통속적으로 써야 합니다.》
(《김정일전집》 제12권 245페이지)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천만군민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로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의 창조적능력과 문화적소양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상정신적량식을 끊임없이 안겨준다. 이러한 사상문화교양자적기능을 수행하는데서 문예관평은 중요한 몫을 맡고있다.

문예관평은 관평의 한 형태로서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이 훌륭히 구현된 문학예술 작품에 대한 소개와 분석을 통하여 우리 당 문예사상과 리론,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널리 선전하고 독자들로 하여금 문학예술작품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를 정확히 리해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사상적수준과 문화적소양을 높여주며 창작가, 예술인들을 보다 높은 예술형상창조로 고무추동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문예관평은 반영대상이나 서술목적, 서술방식이나 문체 등에서 신문에 실리는 다른 기사들이나 기타 여러 종류의 글들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다.

문예관평의 특성은 무엇보다먼저 인식교양적성격이 매우 강한 글이라는데 있다.

문예관평의 인식교양적성격이 매우 강한것은 그의 반영대상, 서술목적과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신문에 실리는 모든 기사들은 다같이 현실을 반영하며 기사의 매개 종류들이 반영하는 대상에서 절대적인 독자성이나 제한이 있을수 없다. 같은 사실, 같은 대상을 놓고도 어느 측면에서 어떤 내용을 취급하는가 하는데 따라 보도기사도 쓸수 있고 방문기나 소개기사, 실화도 쓸수 있으며 사설, 론설, 정론도 쓸수 있다. 또 이미 보도기사로 내보냈던 사실을 가지고 긍정교양 기사를 쓸수도 있다.

그러나 문예관평의 반영대상은 철저히 영화나 가극, 연극을 비롯한 문학예술작품으로서 대체로 새로 창작형상된 작품이다.

문학예술작품의 기본묘사대상은 인간과 그의 생활이며 작품에 그려진 형상의 중심에는 전형적인 인간성격이 자리잡고있다.

시대정신을 체현한 전형적인 인간과 그의 생활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담은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은 그 인식교양적의의와 감화력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생활의 진리를 똑똑히 인식시키고 참다운 삶과 투쟁의 길을 가르쳐준다.

문예관평에서는 이러한 문학예술작품들을 반영대상으로 하고있다.

문예관평은 문학예술작품들에 대한 심오한 분석을 통하여 광범한 대중이 해당 작품의 주제사상과 당의 령도밑에 이룩된 문학예술작품의 사상예술적성과에 대하여 옳바른 인식을 가지고 작품을 통하여 자신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문화정서적으로 더 잘 수양해나가도록 하는데 주되는 목적의 하나가 있다.

사람은 아는것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이는것만큼 그들이 문예작품을 감상하는

데서도 차이가 생긴다.

당의 의도에 맞게 쓴 문예관평은 사람들이 문예작품을 감상하는데서 생기는 이러한 차이를 줄이고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을 가지도록 이끌어주는데 효과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다.

신문에 훌륭한 문예관평을 써내면 사람들은 해당 작품을 목적의식적으로 보게 되며 거기에서 당의 의도와 요구를 제때에 포착하고 자신도 보다 보람차고 의의있게 사업하고 생활하기 위하여 힘쓰게 된다.

해당 작품의 기본내용과 작품창작에서 이룩된 사상예술적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해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혁명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문화적소양을 높이는데서 문예관평은 다른 그 어떤 기사도 대신할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로부터 문예관평에서는 문학예술작품의 주요내용에 대한 해설과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그것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와 인식교양적의의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 해설하고 분석하는것을 기본으로 하여 전개해나간다.

실례로 《로동신문》 주체105(2016)년 11월 6일부에 실린 보도기사 《새로 나온 예술영화 <졸업증>》에서는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예술영화 《졸업증》을 창작하여 내놓았다는것과 영화의 원형인물들에 대한 소개, 영화의 기본내용에 대하여 간결하게 서술하였다. 즉 영화가 창작되었다는 사실과 영화의 간단한 내용만을 주었다.

그러나 《로동신문》 주체105(2016)년 12월 6일부에 실린 관평 《수령결사옹위의 길에 간직할 정신적량식을 주는 감동깊은 화폭》(예술영화 《졸업증》에 대하여)에서는 영화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그에 기초하여 예술영화 《졸업증》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를 분석하고 영화가 날이 갈수록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는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그러므로 이 관평을 통하여 사람들은 예술영화 《졸업증》의 주제사상적내용과 그 인식교양적의의에 대하여 똑똑히 인식할수 있으며 영화의 주인공처럼 살며 투쟁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새로 창작형상된 문학예술작품을 보고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문예관평은 문예평론과 비슷하지만 역시 반영대상과 서술목적의 측면에서 서로 구별된다.

문예평론은 해당 작품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나 경험 또는 결함과 교훈을 전문가적인 목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창작가들의 창조활동에서 진전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가(평론가)가 쓰는 글이다.

그러므로 문예평론에서는 문학예술작품들에 대해서뿐아니라 문학예술운동,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대하여서도 분석하며 평가한다.

문학예술의 새로운 형상분야를 탐색하고 작품창작과정을 바로잡아주는 문예평론의 선도적역할에 의하여 시대와 작가, 현실과 문학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가 제때에 해명되고 문학예술작품창작과 건설에 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길이 개척되게 된다.

문예평론은 작품창작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문제를 당의 문예사상과 리론에 기초하여 선도하는것, 시대적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제때에 민감하게 포착하고 창작의 주제방향과 형상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는것, 창작에 필요한 새로운 형상방도와 수법을 탐구하며 우수한 창작경험을 일반화하는것, 작가들의 창작에서 나타난 참신한 시도와 발기를 민감하게 찾아내어 적극 지지해주고 조장발전시키는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문예관평은 새로 창작형상된 문학예술작품을 반영대상으로 하고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광범한 대중이 해당 작품의 주제사상과 작품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를 잘 알도록 한다.

문예관평의 특성은 다음으로 매우 논리적이면서도 해당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을 통하여 설득력있게 쓰는 글이라는데 있다.

문예평론은 일정한 격식과 틀에 맞추어 쓰는것이 아니라 반영대상과 문제의 성격, 필자의 개성에 따라 대답식으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논쟁하는 형식으로 쓸수도 있고 운문형식이나 수필형식을 취할수도 있으며 서한체, 일기체 등 여러가지 다양한 형식과 수법을 리용하여 쓸수 있다.

그러나 문예관평은 문학예술작품이 달성한 사상예술적성과를 일정한 체계로 구분하여 논제를 제시하고 타당한 론거와 구체적인 자료를 안받침하여 논리적으로 전개하는것을 주되는 서술방식으로 한다.

문예관평에서 기본은 해당 작품의 주제사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다.

작품의 주제는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이다. 다시말하여 작품에 반영된 다양하고 복잡한 사건과 인간관계, 생활세부를 하나의 문제성으로 통일시키고 집중시키는 기본문제가 바로 작품의 주제이다.

작품의 사상은 종자의 구현과정을 통하여 밝히려는 작가의 주장이고 화폭으로 펼쳐지는 생활에 대한 그의 평가이며 인물의 운명에 대한 결론이다. 작품의 사상은 종자와 그에 의하여 규제되는 성격, 사건, 갈등과 같은 여러가지 형상요소가 생활에서 본래부터 가지고있던 사상적내용과 그에 대한 작가의 견해의 통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모든 독자들이 해당 작품을 통하여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해 심장으로 절감하고 작품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를 정확히 리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예관평에서 작품의 주제사상부터 논리적으로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로동신문》주체105(2016)년 8월 12일부에 실린 관평 《혁명은 신념이고 신념은 승리이다》(혁명가극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에 대하여)를 실례로 들수 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사령부의 안녕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장렬한 최후를 마친 최희숙동지의 영웅적인 투쟁이야기에 기초하여 창조된 혁명가극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는 오늘 우리 당이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중요하게 강조하고있는 신념문제를 주제로 내세우고 있다.

《혁명가극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창조집단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정을 신념으로 간직한 인간은 두눈이 없어도 혁명의 승리를 보지만 신념이 없는 사람은 두눈이 있어도 승리를 보지 못한다는 사상적알맹이를 확고히 찾아점으로써 우리의 투쟁과 생활에서 중요한 사회정치적의의를 가지는 혁명가와 신념, 신념과 승리라는 주제를 제기하고 오늘 우리 천만군민이 어떤 사상과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 하는 시대의 물음에 훌륭한 사상예술적해답을 주었다.》

관평에서는 혁명가극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에서 내세운 이러한 주제를 해명하기 위하여 여러 론점들을 설정하였다.

《혁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장구하고도 시련에 찬 투쟁이다. 광범한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상을 실현할 때까지 온갖 원썩들과의 첨예한 대결속에서 상상할수 없

있던 난판도 뚫고나가야 하는 혁명의 길은 신념의 강자들만이 걸을수 있다.

총대를 잡고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저절로 혁명가로 되는것이 아니고 순간의 충동이나 의무감, 학식이나 재간으로 혁명을 하는것도 아니다. 자신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믿음이고 죽음도 맞받아나가는 각오이며 육체는 쓰러져도 영원한 삶으로 남아있는 신념, 그런 신념을 간직한 투사들의 값높은 생이 대하처럼 합쳐진것이 혁명이다.

작품은 자기가 내세운 사회정치적문제성의 요구에 맞게 사령부의 명령을 관철하는 길에서 주인공이 걸음걸음 부닥치는 뼈아픈 시련을 어떻게 뚫고 헤쳐나가는가, 최후의 순간까지 혁명가의 절개와 지조를 지켜나가게 하는 근본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내는데 형상의 초점을 돌리고있다.

...

투사가 간직한 혁명신념은 결코 복잡한 리론이나 공식이 아니다. 혁명가의 신념은 본질에 있어서 혁명의 수령을 믿고 따르는 마음이다.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고 수령의 령도를 받들어나가면 반드시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정신이며 백절불굴의 그 절개는 수령이 안겨준 고귀한 사랑과 믿음속에서 태어난것이다.

...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을 포착하게 된다. 수령의 사랑과 믿음을 온 세상을 다 준대도 바꿀수 없는 최고의 영광으로, 최대의 행운으로 여기는 사람만이 끝까지 혁명신념을 지킬수 있다는것이다.

혁명신념은 수령의 사상과 숨결, 수령의 사랑과 정, 수령에 대한 끝없는 매혹과 숭배로 가득찬 또 하나의 세계이다. 가장 성스럽고 위대한 이 정신세계를 지니지 못했다면 혁명의 전도를 볼수도 없고 들을수도 없으며 투쟁의 먼길을 끝까지 걸어갈수도 없다.

...

혁명가극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는 혁명은 신념이라는 심오한 진리를 투쟁과 생활의 산 화폭으로 감명깊게 해명한데 기초하여 신념은 곧 승리이라는 력사의 철리를 힘있게 선언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혁명에 대한 무한한 열망과 승리에 대한 드높은 확신을 안겨주고있다.

...

혁명가극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를 보고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절절히 깨닫게 되는것이 있다. 신념보다 더 강한 인간의 정신력, 그보다 더 우월한 도덕적가치, 것처럼 놀라운 기적창조의 힘은 없다는것이다. ...》

관평에서는 이러한 론점들을 혁명가극의 구체적인 장면들에 대한 해설과 결부하여 깊이있게 분석하였다.

원썬들의 야수적인 고문에 두눈마저 잃은 주인공이 감방안에서 딸애와 다시 만나는 장면에 대한 해설과 그를 통한 분석을 보자.

《그 어떤 고문과 회유로도 사령부의 위치를 알아내려던 시도를 실현할수 없게 되자 원썬들은 주인공을 굴복시킬 마지막기대를 가지고 감방안에 그의 딸애를 들여보낸다. 군복천과 쌀을 구하러 적구에 내려갔을 때 커다란 샷썰래함지를 머리우에 이고 나타났던 봄순이, 작은 앞가슴에 7년전 어머니가 매달아준 꽃주머니를 달고 다가서는 딸을 붙잡고 마음껏 울지도 못했고 사과 한알도 끝까지 따라가 쥐여주지 못한 아픔이 주인공에게는 아직도 가슴

속에 피멍으로 남아있었다.

참으로 억이 막혀 온 관중이 세찬 흐느낌속에 눈물을 쏟는다. 두눈이 있을 때에는 앞에 두고서도 품에 안아주지 못했던 사랑하는 딸을 다시는 영영 두눈을 볼수 없게 된 그 시각에야 <봄순아- > 하고 부르며 부둥켜안게 된 주인공이었다. 어머니의 걸모습이 너무도 처참하고 무서워 뒤걸음치다가 마침내 <엄마야- > 하고 달려가 안기는 귀여운 딸애, 정녕 그때라도 그에게 지금껏 주지 못했던 어머니의 사랑을 안겨줄수는 없었는가.

있었다. 몇마디 말만 하여도 그는 감방을 나와 딸애와 정을 나누며 편안히 살수도 있었다. 그러나 신념을 버리고 얻은 그런 생활이 딸애에게 있어서나 자신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겠는가.

인간의 더 없는 정의이고 량심인 신념은 그런 삶을 죽음보다 못한 치욕으로, 용서할수 없는 죄악으로 여긴다. 바로 그래서 투사는 딸애에 엄마는 없어도 크나큰 사랑이 너를 지켜준다고 노래하면서 끝까지 혁명을 위하여 싸우는것이다.

그 크나큰 사랑이란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의 사랑이고 승리한 혁명이였다.》

이렇게 관평에서는 혁명가극의 장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을 안받침해주면서 혁명은 신념이라는 고귀한 진리를 생동한 형상속에서 밝혀냈다.

문예관평의 특성은 다음으로 여러가지 문체론적수법들과 감정정서적색채가 짙은 다양한 어휘표현들을 적극 리용하여 통속적으로 쓰는 글이라는데 있다.

문예관평에서는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에 기초하여 해당 작품의 사상예술적성과와 종자 및 주제사상을 작품의 내용과 등장인물들의 성격형상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밝혀준다. 그러므로 문제, 론거, 증명과 같이 명백한 논리적구조를 갖추며 사상리론적으로 깊이있게 분석한다.

그러면서도 딱딱하고 무미건조하게 논리만 양상한것이 아니라 해당 작품의 내용에 대한 통속적인 해설과 등장인물들에 대한 생동하면서도 구체적인 묘사, 비유법이나 대비법과 같은 문체론적수법들과 감정정서적색채가 짙은 다양한 어휘표현들을 적극 리용함으로써 독자들이 해당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과 인식교양적의의 등을 쉽게 파악할수 있도록 한다.

여러가지 문체론적수법들과 감정정서적색채가 짙은 다양한 어휘표현들을 적극 리용한다는 측면에서 문예관평은 정론과 비슷한 점이 많다. 그러나 문예관평에서는 정론처럼 필자의 주정을 강렬하게 토로하는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해당 작품에 대한 해설과 작품의 주제사상에 대한 분석이 기본이다.

그리고 문예관평은 문학예술부문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아니라 광범한 대중을 독자대상으로 하는 신문의 기사인것으로 하여 통속적으로 알기 쉽게 서술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천만군민에게 건전하고 풍부한 사상정신적량식을 주고 그들의 심장을 혁명열, 투쟁열로 불타오르게 하는 시대의 명작, 력작들이 창작발표되고있다.

우리는 문예관평의 특성을 잘 알고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문예관평을 훌륭히 집필함으로써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사상문화교양자적기능을 더욱 높여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